



수도권 주민은 이렇게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권의 주민과 자동차의 통제

정부는 수도권 주민을 보호하고 혼란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과 자동차의 통행을 철저히 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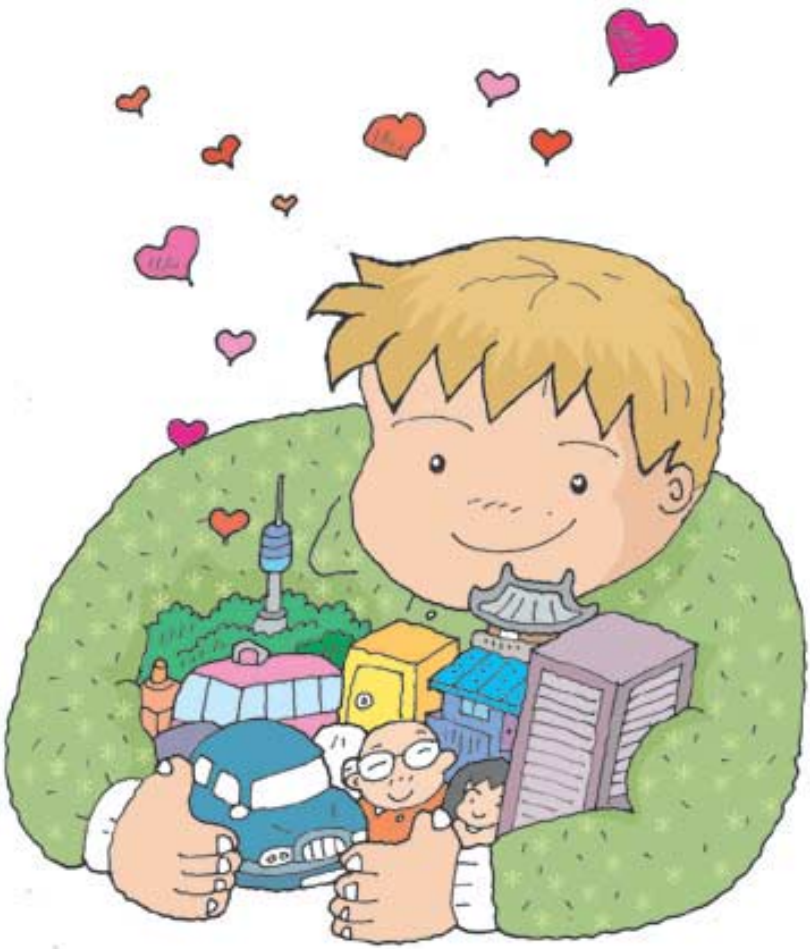
- 주민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귀가해야 한다.
- 전쟁 초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
-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운행 제한을 완화하며 생업 활동도 재개하게 된다.

수도권 주민은 피난이 불가능하다

인구와 자동차가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이 수도권의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이 후방으로 피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일에 수도권 주민이 전쟁 초기에 피난을 시도할 경우 수천만의 인구와 자동차들로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교통은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내 자신이 수도권을 지키는 주체임을 자각하자

자발적인 항전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면서 국가와 내 고향을 위해서 싸우자. 민·관·군의 힘이 결집된 총력전 태세를 유지할 때만이 수도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